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탁 과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상민
	스마트*빌딩 조성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에 관한 연구	남성우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방안 연구	조영진

auri

①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7년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수립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국민들이 경관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2개 목표를 수립하고, 3개 추진전략과 8개 정책과제, 16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지역 경관관리체계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도로 경관을 형성·관리·확산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3개 목표를 수립하고, 3개 추진전략과 6개 정책과제, 18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2024년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한 정책성과와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여건 변화와 정책수요 분석을 통해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 1,000명, 관련 분야 전문가 147명을 대상으로 국토경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참신한 경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 경관정책 참여단’을 운영하였다. 또한 보다 실효성 있는 경관정책을 마련하고자 경관과 관련한 도시·건축·조경·공공디자인·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TFT를 구성하고, 최근의 정책변화와 사회 여건에 대응하여 경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앞서 수립한 두 차례의 기본계획 내용을 내실화·고도화하고, 나아가 민·관·산·학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국가 경관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경관의 형성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제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공청회(12월 3일)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② 스마트+빌딩 조성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에 관한 연구

스마트+빌딩은 건축물을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들의 수용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건축 혁신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빌딩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2023년에 민-관 협의체인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같은 해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담은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추진 과제들 중에서는 정책 실행력을 수반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가칭)스마트+빌딩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을 위한 근거 자료와 법안을 마련하는 등 법령 제정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방안으로 다뤄야 하는 당면 과제들 도출하고, 스마트+빌딩의 개념에 따라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합성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건축 관련 법령들의 조항 및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 부문의 제도 수요를 반영하고자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항들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과 융합 혁신을 위한 건축 제도를 제정하고 입법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정책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건축 분야에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남성우

③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 부족과 정책 효과의 미비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부모들이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영유아 동반가족은 외출 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주차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주차갈등이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영유아 동반가족에게 전용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유모차 우선 주차장을 도입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영유아를 위한 주차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도입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대안을 제안하고, 관련 하위법 및 조례 개·제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육아 환경 개선의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진

2024 건축법제 개선방향 릴레이 세미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운영현황과 제도 개선방향'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26일(목) 원베일리 인바이트 지역문화센터에서 2024 건축법제 개선방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운영현황과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증 제도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 발제는 정성철 사이건축사사무소 대표가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는 배선헌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광재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박선희 (주)에스비환경디자인 소장을 비롯하여 배선헌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득 (사)한국건축가협회 연구부회장,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 이영환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정성철 사이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참여하여 공존하는 사회에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4 고령친화 정책포럼 ‘초고령화 시대, 고령자 주거정책의 이슈와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10일(목)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2024 고령친화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고령자 주거정책의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정책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의 개회사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 주거지원 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의 ‘고령친화주택 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이 ‘일본 시니어하우징의 운영 사례와 국내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이상욱 KB금융그룹 사업개발본부장이 ‘국내 노인주거서비스 개발전략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끝으로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이 ‘노인복지주택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최정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기반과장, 최형 한국주거학회 이사,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2024 제6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민간참여 지역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31일(목) 부산시민공원 동백꽃방에서 ‘2024년 제6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부산시 도시재생박람회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창조 한마당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민간참여 지역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먼저 전은호 모라비아앤코 커뮤니티브랜딩 본부장의 ‘지역재생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진화’ 발표를 시작으로, 안나리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실장이 ‘메이커들과 함께 만드는 로컬브랜드, Made by 약사천’을 통해 지역활성화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은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iH도시연구소장과 한지숙 협동조합문화발전소공감 사무국장,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마을재생센터장이 참여하여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auri International Forum ‘Designing Safer Spaces : Environmental Design, from the Security to the Safety, and for the Active Living’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5일(화)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International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범죄 예방, 안전 및 건강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교류의 장으로, ‘Designing Safer Spaces : Environmental Design, from the Security to the Safety, and for the Active Living’라는 주제 아래 고령자를 위한 공간환경 조성 과 안전한 공간을 위한 구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치매 어르신도 안전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환경 조성’을 주제로 Habib Chaudhury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범죄예방·안전을 위한 녹지 공간의 조성 과 커뮤니티 설계’를 이성민 미국 A&M 대학 교수가, ‘식품 접근성의 불평 등 해소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공간 조성’을 Hui Cai 미국 조지아 공대건축대학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서울에서 고령자로 안전하고 활기차 게 생활하기 : 초고령사회에서의 공간적 이슈 찾기’를 강범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는 건축도시공간 조 성을 위한 고찰’을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성과를 공유하 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범죄예방, 안전 및 건강 분야의 최신 동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건강한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2024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공동세미나 ‘지속가능한 도시설계는 가능한가?’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는 11월 8일(금) 서울공예박물관 교 육동 강당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도 시설계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도시설계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모색하고자 공동 기획되었다.

먼저, 김미영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도시사회학 관점의 지 속가능한 도시 조건’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 임연구위원이 ‘도시설계과정과 지속가능성’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이건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탄소중립 도시설계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실 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끝으로 송기황 (주)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와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공간구조개편과 모빌리 티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설계’를 각각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 며, 김희수 (주)라이트브라더스 대표,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전 우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정삼기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자전거 도로 팀장, 임저스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교수가 참여하 여 ‘지속가능한 도시설계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제8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1월 11일(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제8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세션1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Silvia Casorran Martos 스페인 도시 및 지역 자전거 네트워크 사무총장이 'Let's protect schools'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Asa Thomas 영국 웨스트 잉글랜드 브리스톨 대학교 교통사회센터 연구위원이 'play street/school street'를 비대면으로 설명하였으며, 세 번째로 Gabriele Herzog 오스트리아 라츠시 도시교통계획 팀장이 'school road'를 영상으로 소개하였다. 이어진 세션2는 '보행환경 개선사례를 통한 시사점 공유'라는 주제 아래 OHKOUCHI keiko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종합정책연구소 주임연구관이 '일본 호코미치(보행자편의증진도로) 사례'를 발표하였고, Pablo Carreras 프랑스 Codra Conseil Inc. 지속가능교통 전문 컨설턴트가 '파리 올림픽 기간 보행 활성화를 위한 액티브 디자인 전략'을 영상으로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RUI Izumiyama 일본 니혼대학 건축학과 부교수가 '일본 보행자를 위한 도로공간 전환 사례'를 통해 해외 보행환경 개선사례를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발제자 3인이 참여하여 보행자 안전 강화와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4 AURI 경관포럼-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 세미나 ‘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공동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사)한국경관학회는 11월 15일(금)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 ‘2024 AURI 경관포럼×(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배정환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의 기조발제 ‘경관이 만드는 도시’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관법 제정 이후 국토경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한다혁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경관의 “제주다움” 조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혜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속가능한 지역 경관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설명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토론에는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민선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정두용 인하대학교 도시재생학전공 객원교수, 고성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유재 대표가 참석하여 경관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등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auri

2024 AURI 주거정책포럼 ‘청년가구의 주거현황과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8일(목) 스파크플러스 1층 이벤트홀에서 ‘2024 AURI 주거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청년가구의 주거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인문·사회·경제적 관점과 공간적 실태를 논의하고 전문가와 정책실무자가 함께 청년가구의 주거현실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마민지 쌤픽처스 영화감독이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본 청년주거사’를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주제발표는 강현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생활공간 실태’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박사가 ‘청년의 주거 부담가능성’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 단장이 ‘청년의 주거생활공간 수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과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가 참여하여 청년가구의 주거현황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건축·도시·건설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일(월)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건축·도시·건설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건축·도시·건설 분야에서 적용된 사례 공유와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이세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성시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광역계획팀 박사가 ‘도시계획에서의 거대 언어모델 도입 가능성’을, 김강민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가 ‘국가건설기준의 중복·상충부 관리를 위한 초거대언어모델 활용’을, 이어서 정민주 제이케이 컨설팅 대표가 ‘하자보수 건설 AI 기술 적용방안’을, 이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Speech to BIM 적용사례’를 설명하였으며, 끝으로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공지능 건축법령 해석지원 서비스(Archilaw) 연구성과’를 통해 건축·도시·건설 분야 사례를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은 이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남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강범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건축·도시·건설 분야의 AI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포럼 개최와 더불어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Archilaw)」도 공개하였으며, 내년 정식 출시를 목표로 정책과 실무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3일(화)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본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며, 미래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1차와 2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제3차 기본계획에서 비전실현을 위한 세 가지 목표(▲국토·도시 경관의 자원화 ▲미래 건축문화 자산 창조 ▲지역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를 설명하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김재철 가천대학교 교수, 짐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배용규 (사)한국경관학회 회장,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선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관계 공공기관 및 지자체 실무자, 일반 시민 참석자 등과 함께 미래 경관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안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4 HUE INTERNATIONAL FORUM 공동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HMCC, SMC Hue와 12월 6일(금)에 '2024 HUE INTERNATIONAL FORUM'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22년부터 베트남 후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후속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베트남 후에시의 소속기관인 후에발전연구원(HueIDS), 후에정보기술센터(HueCIT) 등과 함께 국제포럼을 추진하였다.

이번 포럼은 문화유산, 녹색경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교류의 장으로, 'Green & 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Cultural Industry & Heritage Economy in Thua Thien Hue'라는 주제 아래 역사문화 보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영범 원장은 '도시의 문화경쟁력과 박물관의 가치'를 주제로,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녹색 도시를 향한 비전 : 한국의 도시 공원 정책과 베트남 녹색 도시 구현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편, 건축, 역사문화, IT, 녹색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녹색경제, 디지털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베트남 후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auri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12월 19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AURI 건축도시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건축, 도시공간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이라는 주제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한 민관협력형 사업인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어촌어항 재생사업과 사회혁신실험 적용 의미'를, 한지숙 동해시 시범사업 앵커조직 총괄PM이 '동해시 대진항 어대노생활권 마을보건실 실험과 성과'를, 김소영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가 '로컬관광을 위한 어촌공정여행 운영 성과', 손유진 거제시 시범사업 앵커조직 팀장이 '지속가능한 지역 경관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향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명상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사무관, 이진하 임실치즈마을 추진위원장, 조성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중호 소풍벤처스 벤처파트너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축공간연구원-대구광역시 수성구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10월 15일(화)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리는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의 개막행사에서 공공건축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등 공공건축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건축·도시 공간 분야 관련 정책 발굴, 연구 지원 협력 ▲건축·도시 관련 행사 공동개최 및 협조 등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향후,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건축·도시 발전과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양 기관이 공공건축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서울특별시 강남구-강남구건축사회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강남구건축사회는 10월 22일 (화) 강남구청에서 건축문화 및 건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품격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업무 지원,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협력, 강남구 건축문화 구현·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고령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정책과제 도출 등에 있어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공공건축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과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킨키대학교 MOU 체결 및 국제교류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킨키대학교는 10월 29일(화) 일본 오사카의 킨키대학교에서 업무협약 체결식과 국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수 및 연구 전문가의 교류 ▲연구 자료, 출판물 및 학술 정보 교환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한일 양국의 건축·도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과 우호 협력 증진 및 미래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식과 연계하여 국제교류 세미나를 통해 ‘어린이 생활공간 및 주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세이카와 하나 (関川華) 킨키대학교 준교수의 ‘도시형 보육시설에서의 야외 활동 현황’,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의 ‘아동을 위한 주거’ 등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이어 발제자와 참석자들이 함께 어린이 생활공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한솔아이킴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한솔아이킴은 11월 21일(목)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에서 공공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두 기관은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의 정책 및 제도 개선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의 건축문화 및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협력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를 통한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에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와 운영 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또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업무협약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세종시교육청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12월 12일(목) 세종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늘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 강사 인력풀 구축 ▲늘봄 프로그램 홍보 및 학교 매칭 등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국책연구기관과 세종시교육청이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세종시 학생들의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를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AURI 세션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지방중소도시재생의 변화와 민관협력 방안’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일(토)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함께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지방중소도시재생의 변화와 민관협력 방안’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방중소도시재생 현황과 사례 등 주제발표 및 토론을 위해 마련하였다.

먼저 주제발표는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방중소도시 재생 10년간의 변화: 영주, 군산사례를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송성진 유한회사 공유인 대표이사의 ‘민간주도의 지역재생: 군산 리터닝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윤주선 충남대학교 교수, 조준배 영주시 총괄계획가/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중소도시재생의 변화와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24 AURI 석·박사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auri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6일(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 석·박사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건축·도시·조경 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4월 15일 부터 11월 15일까지 총 7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월 1~2회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동연구 수행, 논문작성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표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건축과 도시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제로 에세이, 포스터, 동영상 등 3개 분야를 모집하였으며, 특히 특별부문을 신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1~3학년)와 초등학교 고학년부(4~6학년)를 대상으로 손그림과 디지털 드로잉(그래픽 프로그램, 태블릿 등 툴을 이용한 그림)아이디어를 함께 선정하였다.

심사를 통해 총 16점을 선정하여 일반부분과 특별부분에서 각각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일반부분에서는 우수상 1점, 장려상 5점을 특별부분에서는 고학년부와 저학년부에서 각각 우수상 3점을 수여하였다.

특별부분 대상에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동 마다 계절이 다른 사계절 아파트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연과 함께하는 미래도시'가 선정되었으며, 일반부분 대상에는 폐점한 도심 내 대형 유희 공간의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을 제안한 '폐점한 대형마트, 노인복지시설로의 리모델링 제안'이 선정되었다.

